

'현우경' 이야기 (19)

100개 머리를 가진 물고기

어느 어촌에 1000명의 어부들이 살고 있었다. 500명은 작은 고기를 낚고, 나머지 500명은 큰 고기를 잡으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큰 그물에 고기 한 마리가 걸렸다. 500명의 어부들은 있는 힘껏 그물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그물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결국 1000명의 어부들은 모두 힘을 합쳐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어렵게 고기를 잡은 후, 어부들은 고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고기 몸에는 100개의 머리가 달려있었다. 머리 모양은 말, 호랑이, 돼지, 개, 원숭이, 고양이 등 각기 다른 모습이었다. 그때 부처님과 비구들이 어촌을 지나다 우연히 이 광경을 발견하게 됐다.

"무슨 일이 생겼기에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는가?"

"어부들이 고기 한 마리를 잡았는데, 몸

에 머리가 100개 달렸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비구들과 함께 고기가 있는 곳으로 갔다. 부처님이 고기에게 물었다.

"네가 가버리나?"

"네 그렇습니다."

"너를 가르친 사람은 어디 있느냐?"

"아버지육에 떨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비구들과 어부들은 깜짝 놀라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은 이 고기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다. 나는 예전부터 이 고기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어째서 이 고기는 머리 100개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까?"

아주 먼 옛날 황두라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나라에서 제일 총명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황두의 아버지가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아버지는 죽기 전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다.



삼화·강병호

"너는 절대 스님들과 지식을 겨루지 말거라. 스님들은 지혜가 깊어 너는 분명히 질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황두에게 물었다.

"너는 이 나라에서 제일 총명하다. 지금 너를 이길 자가 있느냐?"

"스님들이 저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나?"

"제가 모르는 것이 생겨 스님들에게 물으면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지만 스님들이

제게 물으면 답하지 못합니다."

"너는 왜 스님들에게 법을 배우지 않느냐?"

"그 법을 배우려면 저도 출가해야 합니다. 어찌 제가 그 법을 배우겠습니까?"

"거짓으로 출가한 뒤 법을 배우면 집으로 돌아오거라"

황두는 어머니의 말에 따라 출가를 하고 열심히 불법에 대해 공부했다. 황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삼장을 모두 읽고 이치에 통달했다.

어머니가 물었다.

"이제 스님들을 이길 수 있느냐?"

"학문으로 이길 수 있지만 수행력이 깊지 못해 질 것입니다. 저는 아직 분별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라. 스님들이 너에게 질문해 답하지 못할 경우 욕을 하거라."

"아버지는 절대 스님들과 지식을 겨루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스님들께

욕을 하겠습니까?"

"그래야 네가 이길 수 있다."

황두는 어머니의 말이 내키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결국 스님들과 변론할 때 자신이 군색하게 되면 상대를 가리지 않고 욕을 했다. 그때 황두는 온갖 짐승의 이름의 갖다 대며 욕을 퍼부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황두는 그때의 구업으로 고기로 태어났다. 당시 온갖 짐승의 이름을 대며 욕을 해, 100개의 머리를 갖게 됐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자식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죄로 아버지육에 떨어졌다. 황두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저 몸을 벗지 못할 것이다."

1000명의 어부들은 부처님의 이야기를 듣고 슬퍼했다. 어부들은 모두 합장하며 부처님께 출가를 청했다. 부처님은 어부들의 출가를 기쁘게 허락했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84@hyunbul.com

대장경 속 우화 (2)

-자라의 호기심-

구성-김흥인

아주 옛날, 어느 작은 호수에 자라 한마리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오랜 가뭄으로 인해 물이 말라 자라는 위험에 빠졌다.

자라는 물이 있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자 했으나...

마침 고니를 만난 자라는 도움을 청했다.

고니야 나를 물이 있는 곳으로 좀 옮겨다오!

나도 요즘 못먹어서 가운이 없는데...!

자라를 딱하게 여긴 고니는 그러기로 했다.

그래 알았어! 한번 해보자!

고니야! 너무너무 고마워!

고니는 자라를 입에 물고 하늘로 올랐다.

오와~ 놀다! 퍼드득!

그런데 얼마 안가서 자라가 고니에게 물었다.

와~ 세상이 넓구나! 여긴 어디야?

고니가 대꾸를 안하자...

어디냐고 묻잖아!?

내발 안들려~?

자라는 계속 말을 걸었다.

나랑 말하기 싫은거니?

이유고...

나한테 빼졌어?

한마디 하는게 그렇게 힘들어?

화가난 고니는 그만 입을 열고 말했다.

말 좀 그만 시켜!

어딘지 알면 뭐할건데!?

아차!

평바닥에 내동댕이쳐진 자라는 죽고 말았다.

하늘에서 자라가 떨어졌다!

구워 먹자!

불필요한 호기심이 만들어낸 오해로 자라는 죽음을 자초하고 말았다.

끝

◆3간접집 목조건물: 9500×7000×4500mm / 가격: 평당 150만원

다그라스목재기둥 180×180×2470 / 다그라스목재도리 170×170

다그라스목재서까래 100×100 / 목재판재 120×18 전통강판기와

주춧돌 300×300×300 ※ 황토흙 ALC블럭 내화벽돌 관낼 자유 선택

원하는 평수 가능 토목공사 부가세별도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조립식 평상: 1800×1030×400mm

가격 29만원 → 할인가 19만원

플리프로필렌 자체 기둥 110×90×400 / 도리 80×35 / 중간대 80×35 / 마루판 210×12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지구산업

www.bangaro.com / 방갈로.com

TEL 063)323-3011~2 / FAX 063)323-3010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적하수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문의: 010-8442-4444 (상담)

묘목 재배 농장: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인터넷 게임 중독, ADHD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학교!**

산골작은학교 수오학당

교육상담 (교무실) 054)751-3721 010-8678-3725

우리 학당은 경주에 있는 서당형 대안학교 입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살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생활교육방식을 통해 배움을 몸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공부를 합니다.

우리 학당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인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눌 학생들을 모집 합니다.